

로터스월드, 'UN 특별협의 NGO' 로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로부터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NGO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로써 로터스월드는 NGO 문제에 관해 UN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UN 주최 관련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됐다. 다만 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의제 제안은 제한된다.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와 부속기구에 서면 의견서 및 구두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UN NGO행사 조직, 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UN 시설 출입 등의 기회도 부여받게 됐다.

특별협의지위 자격 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며 로터스월드는 UN에 4년 간격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UN에 관련 자격 신청을 한 로터스월드는 1년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가 개최한 조정·관리 회의(coordination and management meeting)에서 특별협의지위를 얻게 됐다. 현재 한국에는 대략 30개 NGO단체가 등

이한결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UN에 검증된 단체라는 약력을 추가하면서 국제NGO단체로서 신뢰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필리핀이 태풍 하이옌의 피해를 입었을 당시 UN과 연계해 구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정이다.

로터스월드 관계자는 "보다 공신력있는 단체로 인정받게 된 만큼 전문적인 국제개발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경제개발, 사회,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UN 경제사회이사회는 민간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NGO에 협의지위를 부여해왔다. 지위는 3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상위인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 특별협의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자문만 구하는 전문기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포괄적 협의지위를 부여받은 단체로는 굿네이버스와 국제월드비전이 각각 1996년과 2004년에 관련 자격을 획득했다. 이외 특별협의지위를 얻은 국내 단체로는 한국국제봉사기구, 열매나눔재단, 구세군 등이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자격 얻어

합 30개 NGO 동일 지위... 불교 JTS도 자격

구호에서 인권 운동으로 사업범위 확대 전망

일 지위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단체로는 2007년 JTS가 같은 지위를 얻었다.

JTS 측은 "아직 UN에 의견 제출을 해 본 적은 없지만 관련 자격 획득으로 구호활동

이에 따라 로터스월드의 사업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빈곤국 교육·위생사업 등 프로젝트별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인권, 평화 등 권리옹호활동으로 범위를 넓힐 예

아시아 종교인들

한반도 평화 논한다

ACRP, 25~29일 인천서 총회

25개국 450명의 아시아종교인들이 참석하는 제8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총회가 인천 송도에서 8월 25~29일 동안 개최된다.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KCR, 위원장 장재인) 참석 가능성이 열려있다.

ACRP는 평화, 인권, 종교 분쟁 해소 등의 의제를 다루며 주요 국가에 이를 담당하는 활동센터를 건립·운영해오고 있다. 국내에는 ACRP서울평화교육센터가 설립돼 있다.

매 5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는 200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제3차 총회 개최 이후 두 번째다.

'조화속에 하나되는 아시아(Unity and Harmony In Asia)'라는 주제로 열리는 대회는 평화교육과 화해, 인권과 행복, 개발과 환경위원회 세 분과로 이뤄진다. 총회기간동안 분과별로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주제로도 종교인들이 머리를 맞댄다. 각각 대표단은 8월 25일 입국할 예정이다.

ACRP 한국지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이하 KCRP)에 따르면 북한측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참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에는 남북관계상황을 고려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6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은 8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을 비롯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보은군 공주시 순천시 해남군 안동시 영주시 양산시 등 14개 기관과 세계유산 등재 대상 전통산사인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등 7곳 사찰이 등재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진행했다.

글·사진=산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종 영산대재 열고 '국민화합' 발원

8월 15~19일 구인사서... 생전예수재, 삼회향놀이도

천태종이 세월호 사대 등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을 통해 국가 발전을 발원하는 대규모 수륙영산대재를 거행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총광)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단양 구인사 평명전 및 조사전서 '남북평화통일과 국민화합 기원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삼회향놀이'를 연다. 첫날인 8월 15일 입재식 및 과배 점안예

이 수륙영산대재와 생전예수재를 19일 까지 5일동안 연이어 진행한다. 16~18일에는 재의식, 19일에는 재의식, 삼회향놀이 에 이어 회향식 및 소전식으로 회향된다.

이번에 펼쳐질 의식은 영산재, 짚소리, 각배제, 식당작법, 예수재, 수록재 등으로 이어진다. 의식은 구인사 삼회향놀이 보존 회와 천태종 범음범패 보존회 스님들이,

영산장엄은 석용·원공 스님과 노전스님들이 각각 맡는다.

한편, 천태종의 삼회향놀이는 영산재와 수록재 등 큰 재의식이 끝난 뒤 동참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펼쳐지는 일종의 뒤풀이 행사다. 조선시대 이후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가 1950년대 영산재와 삼회향놀이 기능을 보유했던 권수근 스님이 구인사에 머물며 천태종 스님들에게 전수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주원 기자

조계종,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멀빈' 청구

호법부 7일 호계원에 요청... 제적원 제출 주도 등 이유

다른 임원진 보류, 등원 재요청

조계종의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반대하며 중단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멀빈 징계가 청구됐다.

조계종 호법부는 8월 7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멀빈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초심호계원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진 스님의 징계 이유는 △'조계종의 중지 중풍을 봉대한다' 등의 정관을 삭제 △임원 선동해 6월 30일 제적원 제출 등이다. 호법부는 법진 스님의 일련의 행위가 조계종을 탈종, 분종하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다만 다른 임원진들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으며, 재등원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진 스님의 멀빈 징계 청구는 '승려법' 46조 8호와 47조 1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승려법> 46조 8항은 '분종의 승적

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 멀빈징계를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7조 1호는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로 멀빈 징계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다.

청구 사유에 대해 호법부는 "법진 스님은 법인관리법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선학원 이사장을 선동해 제적원을 제출하고 종단의 근간인 종헌중풍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등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고도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거나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호법부는 지난 7월21일 입장을 통해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학원 임원진의 행위는 분종과 탈종을 기도하고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성민 기자

'이석기 탄원서' 조계종, 한센인에게 사과

5일 도법 스님, 한센인협회 사과방문... "한센인 위해 노력"

조계종이 한센총연합회에 공식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이석기 탄원서'에 한센인을 비하하는 구절이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자승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8월 5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센총연합회 본부에서 이길용 한센인총연합회장과 최광현 전무이사 등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또한 이날 자리에서 도법 스님은 한센인 인권증진 추진을 위한 약속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서 문제가 된 구절은 '나병환자들이 사람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때, 전

염이 두려워 그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에도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라고 기술한 부분이다.

도법 스님은 화약사에서 △한센인 및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종단 위상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도법 스님은 6일 약속 이행을 위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도법 스님은 6일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며 "불교계가 진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한센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산성민 기자

본사 주지 선출 '산중총회' 잇달아

용주사 8월 20일·불국사 9월 5일 개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잇달아 열린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용주사는 차기 주지를 선출하지 못해 주지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산중총회는 경선을 통한 주지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구대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강문도회로 구성된 용주사 운영위원회는

성관스님(로터스월드 이사장)을 차기 주지 후보로 추천했고, 월암문도회 운영위원회는 성월스님(정수사 주지)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9월 5일 오후 1시에는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열린다. 앞서 불국사는 8월 28일 제15대 중앙총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른다. 현 주지 성타 스님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주지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선원장 종우 스님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산성민 기자

법화정사 법화경 7만자 석경 새법당 개원법회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어 평화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 일체 생명을 행복하게 인도하신지도 260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화행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부촉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정하면서 전국 전세계에 널리 사경 전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 평화통일 불사리탑을 건립하였고, 천안구룡사에 천불천탑을 건립하여 삼국통일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조선 5백년 동안 임금님께서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온을 위해 제사올리던 동대문구 제기동 성스러운 땅에 지하2층 지상9층으로 법화정사 새법당을 건립하였습니다. 한문 희평적경에서체 법화경과 훈민정음 법화경을 둘에 새겨서, 새법당이 한편의 법화경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전국 전세계 법화행자님들의 사경수행과 전법원력으로 기도하고 보시해주신 은덕으로 성스러운 법당을 완성하여 광복절의 환희속에 개원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두루 참석하시어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과 불교의 정법중흥을 위해 함께 부처님께 축원올리고 법화경 성불인연 맺으시어 불국토를 건설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법의 전당을 빛내주시옵소서.

비구 석도림 합장
일백만 법화행자 청정법원

장소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58-38 (제기역 1번 출구)

일시 불기2558년 8월 24일 일요일 (법회시작 오전10시~)

문의 02-928-1331, 928-1340